

한여름 무더위 속 군악대 음악회

재인폭포 관광객을 위한 5사단 군악대 작은 음악회 개최

연천군과 5사단 군악대는 15일 오후 연천군 재인폭포 주차장에서 재인폭포를 찾은 관광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광복절을 맞이하고 몇 일동안 내리던 비가 멈춰 무더운 날씨에 재인폭포를 찾은 1,000여명의 관광객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오후 3시와 4시 두 번에 걸쳐 500여명이 관람한 공연에서는 30여명 군악대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과 비틀즈의 yesterday 팝페라 공연, 유치원시절 쌍둥이 연예인으로 유명한 현재 5사단에서 군 복무중인 량현 량하의 2집 앨범 Blue공연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락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내용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정자동에서 재인폭포를 찾은 관광객은 외부관광객을 위하여 관광지에서 공연을 개최해 준 연천군과 5사단군악대에 감사하며, 과거 연천군의 장애물로만 인식하던 군부대가 이제는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한 가족처럼 협력하고 있는 것에 연천군의



연천군과 5사단 군악대는 15일 오후 연천군 재인폭포 주차장에서 재인폭포를 찾은 관광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은 광복절을 맞이하고 몇 일동안 내리던 비가 멈춰 무더운 날씨에 재인폭포를 찾은 1,000여명의 관광객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미래가 매우 밝아 보인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도 연천군과 제5보병사단 군악대는 8월23일 전곡은대공연,

연천역, 선사유적지 등 하반기 동안 1달에 2~3번의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유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군에 찾아온

관광객에게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군악대의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연천군, 전시대비와 위기관리 능력제고

연천군은 14일 본청 상황실에서 실과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부서별로 현재까지 연습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을지연습 총괄보고로 진행됐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등 비상시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전시대비 훈련임과 동시에 국가 위기관리 종합연습을 통해 포괄적인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이다.

준비보고회를 통해 전시 대비와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연습을 실질과 같이 완벽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대민지원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참석자



연천군은 14일 본청 상황실에서 실과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부서별로 현재까지 연습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을지연습 총괄보고로 진행됐다.

모두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 생겼어요”

연천교육청 중국 추성시와 학생교류

경기도연천교육청(교육장 양기석)은 8월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동안 관내 초·중학생 16명과 교

사, 학부모 총 21명의 교류단이 중국 산둥성 추성시를 방문했다. 연천군청(군수 김규배)과 추성시

의 하계방학 학생상호교류 합의서 체결에 따라 먼저 연천군의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8월17일부터 21일까지 추성시의 학생 및 교사, 교육국 직원 총 24명이 연천군을 방문하게 된다.

연천군-추성시청 학생 상호 방문 교류는 양 시간간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생활 외국어와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천군청과 교육청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학생 상호 교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연천군청과 추성시청에서는 대상학생들을 위한 중국어와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여 한 달동안 상대국의 기초 언어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4박5일 동안 중국 학생들과 1:1 짝을 지어 다니면서

서툰 중국어와 영어를 혼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생활외국어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중국 학생과 손잡고 태산을 등반하며 깊은 정을 쌓았다.

이어서 소림사를 방문하여 소림 무술을 직접 관람하고, 4일째는 맹자의 고장인 추성시답게 잘 보존·관리된 맹부, 맹묘를 참관하고 맹부 유교학사관에서 맹자 수업을 듣기도 했다.

8월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는 중국학생의 한국 방문은 파주 영어마을 견학을 시작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관람, 모범 초·중학교 견학, 사물놀이 체험 및 한국의 민요와 전통무용 관람, 홀스데이, 송암천문대 별자리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 및 총괄한 연천군청 김중옥씨는 “첫 교류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기쁘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하고 중국어 회화교육도 많이 해서 학생교류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경기도연천교육청은 8월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동안 관내 초·중학생 16명과 교사, 학부모 총 21명의 교류단이 중국 산둥성 추성시를 방문했다.

‘제1회 불우이웃돕기 정기자선 공연’

수익금 전부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급식비 사용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필라이브레스토랑에서 16일 ‘제1회 불우이웃돕기 정기자선 공연’을 개최했다.

필라이브레스토랑이 주최하고 대한적십자 송내봉사회에서 협찬하여 열린 ‘제1회 불우이웃돕기 정기자선 공연’은 3시부터 필라이브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과 떡, 음료수 등 먹거리를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기자선 공연을 주최한 필라이브레스토랑 대표 노미경씨는 수익금의 전부를 소년소녀 가장돕

기, 장애인월체어 보조금지급 결식아동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미경씨는 대한적십자 송내봉사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신시가지 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자선공연을 개최하며 참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제1회 불우이웃돕기 정기자선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만큼 제2회, 제3회 공연으로 계속되어질 기대해 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 제19회 시민의장 추천서 접수

시민봉사장·문화체육장·지역개발장·효행선행장·향토애향장

동두천시는 제19회 동두천시 민의장 후보 대상자 추천을 8월31일까지 접수받는다.

동두천시는 매년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동두천시 시민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시민의장 조례에 의거 금번 제19회 시민의장 수상에 보다 훌륭한 시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상인원은 시민봉사장, 문화체육장, 지역개발장, 효행·선행장, 향토·애향장 각 부문별

로 1명씩 5명이다. 수여대상은 동두천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동두천인자, 동두천에 소재한 직장에 소속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5년 이상 활동한 자이며, 시의회의원,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장, 학교장, 기업체장, 근로자대표, 실과소장,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 총무과(☎031-860-2122, 2127)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추천서에 의거 심사를 거쳐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 확대 오픈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조회 등 납세편의에 크게 기여

양주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이 지방세 정보이용과 서식 등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자체에서 운용하던 지방세 인터넷 세무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세무민원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과오납금 조회 등 종합서비스로 8월16일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의 가동으로 취득·등록세 및 주민세 등 지방세를 포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및

실시간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지·납부결과 조회, 과오납 신청 및 지방세정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용 방법으로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이용하면 포털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이용 중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양주시는 금번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기존 시 자체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물론 지방세 납세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도서관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가자

양주시는 8월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임춘민 양주시장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도서관 학술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사)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도서관건립계획, 건립사업비추정 및 재원조달방법, 도서관건립관련 시민설문조사결과분석 등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하계부업대학생 주요시설 견학 및 간담회

동두천시, 공무원의 편견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 마련

동두천시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기획감사실의 21개 부서에서 하계부업으로 근무하

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관내 주요시설의 견학과 시장납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 14일까지 30일간 기획감사실의 21개 부서에서 하계부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관내 주요시설의 견학과 시장납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부업대학생들의 근무기간 종료에 앞서 생연1동사무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환경사업소, 수도서비스센터 등 주요시설의 견학을 통해 애乡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학생들이 행정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과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 사람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중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만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면서 어렵거나 시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시장에 직접 전화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군인 선생님”

양주시 25사단 포병연대 청룡대대 지역 공부방 교사 지원

25사단 청룡대대는 지난 5월14일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 각 전공 교사를 지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청룡대대는 ‘삼한친구 대한육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부대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공부방을 개설하여 지역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은 입대 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17시부터 20시까지 3시간씩 영어와 수학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장병들의 사전 교육준비로 현재는 전문교사 못지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모습을 낯설어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서슴없이 질문을 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두선 상병은 “군복을 입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지만 지금은 6년의 유학생활 동

안 같고 뒤얽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군인 선생님이로서 주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 목사님은 “격오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다”며 “부대에서 이처럼 공부방을 개설하여 교사를 지원해 주어 너무 감사하고 군

이 우리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룡대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시 누구보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해 달려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25사단 청룡대대는 지난 5월14일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 각 전공 교사를 지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여름밤의 꿈 여름사냥 2007’

양주 버들소리연희단 25일~26일 정기공연

양주 연희단 버들소리가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한여름밤의 꿈-여름사냥 2007’ 버들소리연희단 정기공연을 갖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버들소리연희단의 정기공연은 기존 공연에서 가지고 있던 전통과 현대의 화합이라는 주제 속에서 한층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전통예술을 전공한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예술의 현대적 수용이라

는 가치이래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고 있는 ‘The 꿈의 대고연주, 대취타 공연, 전통과 현대의 각종 악기로 구성된 기악단과 전통음악을 비롯한 가요, 재즈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의 보컬그룹인 퓨전그룹 樂의 퓨전콘서트 버들소리연희단의 신명나고 화려한 연희 등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 공연의 특색은 각각의 특색이 있는 무대들이 ‘꼬마요정’이 등장하

여 출연자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각각의 다양한 무대를 이어 하나의 무대로 완성시켜 마치 꿈속에 빠진 듯한 환상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전통연희 문화를 자연과 함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이자 여름피서가 될 것이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